

익명성과 공격성의 관계: 자기에 유형과 성차를 중심으로*

조 효 심[†] 조 수 현[‡]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온라인 환경의 특성 중 하나인 익명성과 개인의 심리 내적 특성인 자기에성향이 성별 및 하위요인별로 공격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대 이상 성인남녀 206명을 대상으로 익명성, 공격성,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성향을 측정하였고, SPSS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익명성이 공격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지만, 자기에 유형을 추가로 고려하였을 때, 공격성에 대한 익명성의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자기에적 성향은 익명적 조건에서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 유형 모두 공격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익명적 조건에서 자기에 유형은 성별에 따라 공격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내현적 자기에성향만 공격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여성은 익명적 조건에서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성향 모두 공격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익명성 보장 상담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 익명성 자체뿐만 아니라 자기에적 성향과 성별 등의 내담자 개인특성을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익명성, 공격성,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2373)

† 제1저자: 조효심,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조수현,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E-mail:soohyuncho@kmu.ac.kr

 Copyright © 2024,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고 우리 삶의 방식과 사회 구조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시켰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 양상은 심리상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특히 온라인 상담으로의 전환과 확대가 두드러진다(정광훈, 2022).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소통하는 전문적 심리상담으로서(Bloom, 1988), 자신의 고민과 심리적 어려움을 토로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사이버공간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하고 자발성과 참여를 높일 수 있어 청소년 상담에서 주목받아 왔었다(류은희 외, 2016; 엄혜현 외, 2014).

문자상담, 채팅상담 등 온라인 상담을 비롯해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편의성, 경제성, 익명성을 들 수 있다(한수미 외, 2021; Young, 2005). 이 중 익명성(anonymity)은 면대면(face-to-face: FtF) 커뮤니케이션과 온라인상의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 효과를 구분하는 핵심 변인으로(Scott et al., 1998), 타인이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하지 못하는 상태로 개인을 평가, 비판 또는 처벌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Christopherson, 2007; Zimbardo, 1969).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비가시성은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차별과 제약 없이 적극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긍정성이 있지만(이성식, 2005), 정보 왜곡과 무책임함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실명제 논의의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우지숙, 나현수, 2017). 자신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자기조절 능력을 잃게 되는 현상은 Zimbardo(1969)의 몰개성화이론(deindividuation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다. 몰개성화 상태에서 그룹 내의 개인은 식별될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 죄책감이나 수치심, 두려움과 같은 내면적 통제가 약화되고 억제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Christopherson, 2007).

선행연구들은 악성 댓글 참여(김지인, 이소연, 2019), 익명 상황에서의 언어폭력(이인혜, 2014) 등 온라인상의 문제점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공격성을 들고 있다. 공격성은 자신 또는 타인을 향한 심리적 상황과 외현적 행동을 포함한 반사회적 부적응 행동으로서 신체적 공격성(Physical aggression), 언어적 공격성(Verbal aggression), 분노(anger), 적대감(hostility)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공격과 언어적 공격은 타인에게 상처나 상해를 입히려는 행동 경향성이며, 분노감은 행동의 정서적 요소로 공격을 위한 생리적인 각성과 준비성을 나타낸다. 적대감은 냉소적, 부정적 방식으로 타인과 세상을 보며 공격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Buss & Perry, 1992).

익명성에 의한 공격성은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을 증가시키고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과 언어폭력을 일으키며(김대권, 2006; 박대식, 손은정, 2016; 육은희, 2018), 무관한 타인에게 내재화된 화를 표출하는 전위 공격으로 이어져 사이버불링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소예은, 김해숙, 2021). 특히 e-mail, 댓글 등 실명이 노출되는 온라인 환경과는 달리 실명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높은 수준의 익명성이 제공되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이나 범죄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반형걸 외, 2022). 상담장면에서 나타나는 익명성에 의한 공격성으로는 악성적 탈억제 현상을 가져와 상담자에 대한 공격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상대방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의 위협요인이 되기도 한다(성미경, 박성희, 2021; 정다운, 이영선, 2022).

한편, 김한민, 김기문(2018)은 익명성의 영향을 검토한 논문들을 메타분석 한 결과, 악성 댓글이라는 공격적 행위에 대한 익명성의 영향만 검토했을 때 보다 자기통제력, 도덕성 등 개인특성 변인과 함께 보았을 때 공격성을 더 유의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익명성과 공격성에서 제3의 관련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공격성의 원인 및 관련된 요인으로 자기에(강선영, 홍혜영, 2012; 서수균, 이현두, 2018; 이상아, 장혜인, 2018; Marc et al., 2008), 비합리적 신념(서수균, 2011), 자존감(고진경, 2017; 이은희, 2022) 등을 들었다. 이 중 공격성과 일관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심리적 특성으로 자기를 품고 있는데(강선영, 홍혜영, 2012; Marc et al., 2008), 자기에성향이 높은 이들은 자신이 평가받는 상황이나 자기에성향이 위협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높은 공격성을 보이기도 한다(Bushman & Baumeister, 1998). 자기에와 공격성에 관한 메타 연구에 의하면 자기에성향의 이들은 타인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성을 사용하며(Du et al., 2022), 부정적 자기 측면을 숨기고 긍정적 자기 측면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온라인 내 상호작용을 선호한다(Keipe et al., 2015). 또한, 익명 상황에서의 자기에특성을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에성향을 지닌 이들은 자기평가에 대한 염려로 사회적 상황을 피하게 되고(김혜원, 이지연, 2017), 타인으로부터 원하는 피드백을 받지 못하거나, 자아가 위협받는다 고 판단되면 관련이 없는 다른 대상을 향해 표출하는 전위공격성을 보일 수 있어, 사이버폭력의 형

태로 나타나기도 한다(유보라, 정남운, 2021; 조은영, 곽은희, 2012). 따라서 자기에와 공격성 간의 관계는 익명 환경에서 더욱 촉진될 수 있어 세 가지 변인 간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에는 외현(overt)과 내현(covert)으로 구분되며, 웅대성과 취약성의 공존을 특징으로 한다(Akhtar & Byrne, 1983).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는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려는 목적은 같지만, 그 방법은 하위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긍정적 사건을 통해 자기를 고양하는 외현적 자기에성향과는 다르게, 내현적 자기에는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의 형태를 띠게 된다(황성훈, 2010). 자기에의 유형에 따라 공격성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외현적 자기에는 언어적 공격, 내현적 자기에는 적대감 수준이 높다(김효주, 2010). 특히 열등감, 수치심, 타인의 평가에 과도한 주의집중을 하는 내현적 자기에의 경우, 분노나 격노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타인을 향한 높은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더 역기능적이며(정남운, 2001b; Cooper, 1998) 공격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 있다(강형숙, 구훈정, 2022).

한편, 선행연구들은 공격성과 자기에에 관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공격성의 경우, 남성은 관계적 공격성, 여성은 언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상관성이 높고(오인수, 2014), 사이버 폭력성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성정혜, 김춘경, 2022).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위공격성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경향이 높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전위공격성을 보였다(소예은, 김해숙, 2021). 또, 남성은 사이버 공격성을 덜 민감하게 인지하며 불특정 다수를 공격 대상으로 하

지만, 여성은 현실에서의 괴롭힘 대상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기도 하는 등(이승미, 2014) 공격 대상과 공격형태가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자기애의 성별 차이에 관해 Grijalva 외(2015)는 자기애를 차원별로 구분하여 진행한 메타 연구에서 착취와 권력, 그리고 리더십과 권위 차원에서는 남성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낮은 자존감, 신경증, 취약성 차원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국내연구도 외현적 자기애에서 남성이 유의하게 높으나 내현적 자기애는 남녀차이를 보이지 않아 하위요인별로 성별 차이를 보고하였다(김영운 외, 2011). 그러나 여성에게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으므로(김정현, 2017; 임수진, 이수진, 2020) 자기애의 성별 및 하위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사이버불링과 악성댓글을 통해 익명성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연구대상자는 주로 청소년과 대학생이었다(권순화 외, 2021; 박대식, 손은정, 2016; 이수봉, 2017). 또, 자기애와 공격성에 관한 연구는 이들의 관계에서 중간변인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강형숙, 구훈정, 2022; 서수균, 이현두, 2018; 유보라, 정남운, 2021) 등이 있었다. 본 연구는 사회 전반적 영역에 온라인 환경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익명성을 지각한 사용자가 공격성을 보이는 양상을 개인특성 중 하나인 자기애 유형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 이를 통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담자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익명성과 자기애성향은 공격성을 어떻게 설명

하는가? 둘째, 자기애의 유형별로 공격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셋째, 익명적 환경에서 자기애 유형별 공격성 양상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익명성과 자기애가 공격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대 이상 60대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9일간 구글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안내문을 통해 연구목적과 내용, 비밀보장 원칙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응답 도중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과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받았고, 자발적 동의 의사를 밝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응답 사례로 모바일 기프트콘을 전송받았다. 총 211명의 데이터 중 설문 문항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5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206부(응답률 98%)였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 77명(37%), 여성 129명(63%)이며 평균 연령은 33.25세($SD=10.80$)이다. 응답자 연령대는 20대 94명(45.6%), 30대 61명(29.6%), 40대 23명(11.2%), 50대 이상은 28명(13.6%)이다.

측정도구

익명성 척도

익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수봉(2017)의 익명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로(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익명성이 높다. 익명성 척도 하위요인으로는 익명 태도(예: 나는 사이버공간에서 아이디를 어렵게 만들어 내가 누군지 모르게 만든다), 익명 행동(예: 나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는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말을 더 쉽게 한다), 익명 선호(예: 나는 내 신분에 대해 캐묻는 사람이 싫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수봉(201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5이며,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공격성 척도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공격성 척도 AQ(Aggression Questionnaire)를 서수균, 권석만(2002)이 번안 및 개발한 한국판 AQ를 사용하였다.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 등 4개 요인으로 구성된 AQ 척도 29 문항 중 2개 문항을 제외하고 총 27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AQ 척도는 5점 Likert로(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4개의 하위요인으로는 신체적 공격 행동(예: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언어적 공격 행동(예: 친구들은 내가 따지기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분노감(예: 일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나는 화를 참기 어렵다), 적대감(예: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때때로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 문항(15, 24)은 역채점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공격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하위요인 중 신체적 공격성 문항(1, 5, 9, 13, 17, 21, 22, 24, 27)을 제외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Buss와 Perry(1992) 연구에서 AQ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 서수균과 권석만(2002) 연구에서

AQ-K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며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다.

외현적 자기에 척도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Raskin과 Hall(1979)의 자기애성 성격 질문지(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54문항을 Raskin과 Terry(1988)가 주성분 분석을 통해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한 40문항(NPI-40)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를 한수정(1999)이 번안하고 정남운(2001a)이 공통요인분석을 통해 32문항으로 단축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리더십/자신감(예: 나는 자기주장을 잘한다), 권력 욕구/특권의식(예: 나는 여러 사람 속에 섞여 있는 것이 좋다), 과시/칭찬 욕구(예: 나는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우월의식(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 등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에적 성향을 나타내는 문장과 그에 반대되는 문장을 제시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있다. ㉑ 문항을 선택한 경우 1점, ㉒ 문항을 선택한 경우는 0점으로 계산되며, 13개 문항(3, 4, 6, 8, 9, 14, 15, 16, 17, 20, 22, 26, 32)은 역채점 방식이다. Raskin과 Terry(198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3, 정남운(2001a)의 연구에서 .85로 보고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에 척도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하여 과민성 자기에 척도(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를 사용하였다. HSNS는 Murray의 자기에 척도(Murray's Narcissism Scale) 20문항을 기초로 Hendin과 Cheek(1997)가 MMPI 검사에서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척도들과 높은 상관을

보인 문항을 선별하여 완성된 척도이다. 이를 정남운(2001b)이 번안하고 타당화 하였으며 5 점 Likert로(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 10문항(예: 나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을 나에게 대한 비난으로 해석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endin과 Cheek(1997)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62~ .76, 정남운(2001b) 연구에서는 .70, 본 연구에서는 .71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익명성과 자기에의 하위요인이 공격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통계분석,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익명성과 공격성, 자기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남녀 성별에 따라 주요변수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공격성에 대한 익명성과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회귀분석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독립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별로 비교하는 분석 방법으로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1단계에서 공격성에 대한 익명성의 설명력을 확인하고 2단계에서 익명성을 통제 후, 공격성에 대한 자기에 설명력을 남녀 성별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익명성, 공격성,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 등 주요 변인에 관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연구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은 기준치(왜도의 절댓값 2 미만, 첨도의 절댓값 7 미만)를 준수하여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을 확인하였다(Curran et al., 1996).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익명성은 공격성($r=.178, p<.05$), 내현적 자기에($r=.213,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외현적 자기에와는 부적 상관($r=-.142, p<.05$)을 보였다. 공격성은 외현적 자기에($r=.247, p<.01$)와 내현적 자기에($r=.601, p<.01$)와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외현적 자기에는 내현적 자기에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여 분석하였고,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남성의 익명성은 공격성 및 외현적·내현적 자기에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여성의 익명성은 공격성($r=.217, p<.05$)과 내현적 자기에($r=.273, p<.01$)와는 정적 상관을, 외현적 자기에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203, p<.05$). 여성의 공격성은 외현적 자기에($r=.276, p<.01$)와 내현적 자기에($r=.582, p<.01$)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인 반면, 남성의 공격성은 내현적 자기에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630, p<.001$).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의 상관관계는 남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N=206)

	익명성	공격성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
익명성	-	-	-	-
공격성	.178*	-	-	-
외현적 자기에	-.142*	.247**	-	-
내현적 자기에	.213**	.601**	.058	-
최솟값	17.00	22.00	2.00	12.00
최댓값	67.00	68.00	31.00	44.00
M	39.480	43.723	12.898	26.742
SD	10.774	9.149	6.843	5.531
왜도	.119	.210	.589	.217
첨도	-.597	-.209	-.428	.360

* $p < .05$, ** $p < .01$

표 2. 성별에 따른 변인 간 상관 및 기술통계 (N=206, 남=77, 여=129)

	1	2	3	4	최솟값	최댓값	M	SD	왜도	첨도	
1	-	.217*	-.203*	.273**	남	17.00	67.00	37.337	10.687	.383	-.224
					여	19.00	66.00	40.759	10.662	-.026	-.636
2	.140	-	.276**	.582**	남	22.00	68.00	43.792	10.736	.184	-.432
					여	25.00	64.00	43.682	8.100	.223	-.328
3	-.048	.217	-	.002	남	2.00	30.00	12.688	6.585	.396	-.552
					여	2.00	31.00	13.023	7.015	.682	-.388
4	.107	.630***	.141	-	남	12.00	44.00	26.155	6.093	.464	.742
					여	13.00	40.00	27.093	5.159	.062	.032

주. 1=익명성, 2=공격성, 3=외현적 자기에, 4=내현적 자기에

주. 상관표 대각선 위=여성, 대각선 아래=남성

* $p < .05$, ** $p < .01$, *** $p < .001$

성별에 따른 익명성, 공격성,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의 차이

성별에 따라 주요변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하였고, 결과는 표 3과 같다. 변인 중 익명성만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낮게 나타났고 ($t = -2.227, p < .05$), 공격성과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에는 남녀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검정 결과

	남성 (N=77)		여성 (N=129)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익명성	2.196	0.629	2.398	0.627	-2.227*	0.027
공격성	2.225	0.588	2.159	0.431	0.923	0.357
외현적 자기에	12.688	6.586	13.023	7.015	-0.339	0.735
내현적 자기에	2.563	0.674	2.657	0.554	-1.090	0.277

* $p < .05$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공격성에 대한 익명성과 자기에

익명성과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가 공격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 여 전체 데이터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모형은 1단계($F=6.676$, $p < .05$)와 2단계($F=47.541$,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938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단계 모형에서 공격성에 대한 익명성의 설명력은 3.2%($R^2=.032$, $p < .05$) 수준이며, 2단계 모형에서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 유형을 추가로 고려하였을 때,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은 41.4%로($R^2=.414$, $\Delta R^2=.382$, $p < .001$) 1단계 대비 38.2% 유의한 설명량 증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모형 1에서 자기에 유형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공격성에 대한 익명성의 설명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B=.151$, $p < .05$, $\beta=.178$), 자기에 유형을 모두 고려한 모형 2에서는 공격성에 대한 익명성의 설명량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075$, $p > .05$, $\beta=.089$),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가 공격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공격성에 대한 익명성과 자기에 유형의 위계적 회귀분석 (N = 206)

모형	변수	B	SE	β	t(p)	R ² (ΔR^2)	F(p)
1	상수	37.755	2.394		15.771***	.032	6.676*
	익명성	.151	.059	.178	2.584*		
2	상수	11.667	2.952		3.952***	.414 (.382)	47.541***
	익명성	.075	.047	.089	1.592		
	외현적 자기에	.303	.073	.227	4.146***		
	내현적 자기에	.941	.092	.569	10.276***		

* $p < .05$, *** $p < .001$

(외현적 자기에 $B=.303, p<.001, \beta=.227$; 내현적 자기에 $B=.941, p<.001, \beta=.569$).

공격성에 대한 익명성과 자기에 유형: 성차 중심

공격성에 대한 익명성과 자기에 유형의 설명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녀 각각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남성의 경우, 회귀분석 1단계에서 공격성에 대한 익명성의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남성의 자기에성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단계 과정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회귀분석 2단계에서 익명성을 통제하고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를 투입하자 공격성에 대한 전체 설명력이 42%로 ($R^2=.420, \Delta R^2=.400, p<.001$) 1단계 대비 40%의 증가를 보였으며, 내현적 자기에성향만이 공격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1.060, p<.001, \beta=.602$).

여성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요인들의 설명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 모형에서 공격성에 대한 익명성의 설명력은 4.7% ($R^2=.047, p<.05$) 수준이며 2단계에서 익명성을 통제하고 자기에를 고려하였을 때, 공격성에

표 5. 익명성과 자기에 유형의 위계적 회귀분석: 남성 ($N=77$)

모형	변수	B	SE	β	t(p)	R ² (ΔR^2)	F(p)
1	상수	38.552	4.459		8.647***	.020	1.493
	익명성	.140	.115	.140	1.222		
2	상수	10.179	5.336		1.908	.420 (.400)	25.182***
	익명성	.082	.090	.082	.911		
	외현적 자기에	.222	.147	.136	1.511		
	내현적 자기에	1.060	.160	.602	6.637***		

* $p<.05$, *** $p<.001$

표 6. 익명성과 자기에 유형의 위계적 회귀분석: 여성 ($N=129$)

모형	변수	B	SE	β	t(p)	R ² (ΔR^2)	F(p)
1	상수	36.968	2.772		13.335***	.047	6.265*
	익명성	.165	.066	.217	2.503*		
2	상수	11.933	3.492		3.417**	.429 (.382)	41.724***
	익명성	.098	.055	.129	1.797		
	외현적 자기에	.348	.080	.301	4.355***		
	내현적 자기에	.857	.111	.546	7.751***		

* $p<.05$, ** $p<.01$, *** $p<.001$

대한 설명력이 42.9%로($R^2=.429$, $\Delta R^2=.382$, $p<.001$) 1단계 대비 38.2%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모형1에서 공격성에 대한 익명성의 설명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B=.165$, $p<.05$, $\beta=.217$)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를 모두 고려한 2단계에서는 익명성의 설명량은 유의하지 않고, 외현적 자기애($B=.348$, $p<.001$, $\beta=.301$), 내현적 자기애($B=.857$, $p<.001$, $\beta=.546$) 공격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공격성에 대해 익명성만을 고려하였을 때는 설명력이 유의하지만,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유형을 고려하였을 때는 공격성에 대한 익명성의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았고,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공격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에 대한 자기애의 설명력 양상은 남녀 성별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그리고 여성은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성향 모두 공격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익명성이 공격성을 설명하는지 검증하고, 공격성에 대한 익명성의 설명분을 통제하였을 때 자기애적 성향이 공격성을 설명하는 양상을 남녀 성별별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익명성 보장 상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성 발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세 이상~60세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익명성과 자기애가 공격성을 설명하는지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변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익명성에서만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이 익명성의 여부에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자기애성향이 높은 경우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이버상에서 일탈 행동의 정당화와 악성 댓글의 관계에서 남성일수록 공격성이 강해진다는(김한민, 박경보, 2018) 연구결과와 상반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공격 행동에서 남녀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김봉섭, 2021)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반면, 여성의 간접적이고 관계적인 속성을 선호하는 방식과 결합하면서 전위공격성 및 사이버불링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소예은, 김해숙, 2021; Hugues et al., 2014)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익명의 속성이 여성의 공격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익명성은 공격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지만, 자기애 유형별의 추가 설명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기애 유형이 추가되면서 이전에 투입된 익명성의 설명력은 오히려 유의하지 않게 되고 자기애 유형별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되었다. 이는 익명성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개인의 심리 내적 특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익명의 상황 이외에 행위자들 본래의 내적 요인이 사이버폭력을 더 잘 설명한다는 이성식(2005)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사이버폭력의 원인을 익명성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아존중감(차은진, 2020) 긴장 이론(신소라, 2016) 등 개인의 심리 내적 요인으로 보고 예방의 차원에서 가해 행동의 억제와 대처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조윤오, 2015)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셋째,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데이터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격성에 대한 예측이 자기에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이 내현적 자기에, 외현적 자기에 순으로 나타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자기애적 분노와 대인관계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익명의 조건에서는 전위공격성을 보이게 되는 등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사이버폭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혜원, 이지연, 2017; 유보라, 정남운, 2021; 이해영, 석동현, 2017).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 는 자기애적 성향을 구성하는 두 개의 하위 개념이지만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공격성을 예측하는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두 하위유형 간의 상관관계도 유의하지 않았다.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높은 이들은 부정적 자기 측면을 숨기고 긍정적 자기 측면이 극대화 될 수 있는 환경으로 온라인을 선호하며 가상 환경이 이상적인 자아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이버 환경에서 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eipi et al., 2015; Kuss & Griffiths, 2011).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공간에서는 이상적 자기(self)의 모습을 구현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현실적 자기(self)와는 다른 정체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익명적 환경에서 자기에 유형별 차이에 의한 공격성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공격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남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을 때, 내현적 자기에성향은 남성과 여성 모두 공격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나 외현적 자기에성향은 남성의 공격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는 외현적 자기에성향은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만(김나은, 박지선, 2021; Grijalva et al., 2015), 내현적

자기에는 남녀 간 성차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와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배혜림, 남숙경, 2019). 본 연구결과에서 외현적 자기에가 남성의 공격성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은 외현적 자기에성향이 높은 남성의 경우, 익명성과는 관련 없이 공격성이 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여성은 외현적·내현적 자기에성향 모두 익명성의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익명성 보장의 상담장면(예. 온라인 상담)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익명성은 공격성 발현을 유의하게 설명하지만, 개인의 심리 내적 특성에 의한 설명력이 더 크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내담자 고유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익명성이 보장된 상담이 가지는 한계는 극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익명의 장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내담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를 선별하는 검사 도구와 스크리닝(screening) 절차에 대한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

둘째, 익명성 지각 상황에서 자기애적 성향이 하위유형 및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인 본 연구결과는 익명성 보장 상담에서 내담자의 성별뿐 아니라 개인 내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통적 대면 상담 영역에서 그동안의 연구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인구학적 특성, 환경적 특성에 따라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는 연구자료들이 축적되어왔다. 반면,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익명의 내담자를 만난다는 것은 또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며 그에 대

한 연구자료는 미비한 실정이다. APA 미국심리학회에서는 2013년부터 원격상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APA, 2013) 국내에서는 체계화된 온라인 상담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상담 활성화에 따른 상담 가이드라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자료의 의미를 가지며, 매체 특성에 따른 내담자 이해를 돕는 경험적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표집 되었으나 연구대상자의 남녀 성비 격차가 크므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지역 및 인구학적 특성에 관해서도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커뮤니티 환경에 따라 익명성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고 공격성의 형태도 다르므로(최재영, 2016), 비대면 온라인 상담의 한 영역인 메타버스 상담 연구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 내적 요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 보고식 설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격성에 관한 문항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응답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응답편향은 측정 결과뿐만 아니라 성별 간 응답 차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권희경, 이현주, 2020).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면담, 실험연구 등 다양한 측정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을 실험조건으로 설정하여 연구 참여자의 개인성향(예. 자기애성향)에 따른 공격성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영, 홍혜영 (2012). 직장인의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통합치료연구*, 4(1), 25-51.
- 강형숙, 구훈정 (2022). 내현적 자기애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의해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9(12), 175-202.
- 고진경 (2017).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1), 290-302.
- 권순화, 정채연, 이현수, 조은경 (2021). 사이버공간에 의한 청소년의 피해-가해 중첩 행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8(11), 29-57.
- 권희경, 이현주 (2020).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자기 보고식 측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31(4), 251-282.
- 김나은, 박지선 (2021). 성별에 따른 자기애가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 12(3), 279-300.
- 김대권 (2006). 사이버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인터넷을 사용하는 20대 남·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2(2), 145-174.
- 김봉섭 (2021).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 -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정보화정책*, 28(2), 57-80.
- 김영윤, 이은진, 김범준 (2011). 대학생의 자기애, 우울과 정신병질 성향과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 97-113.
- 김정현 (2017).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 간 관계에서 가상세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인, 이소연 (2019). 중학생의 악성 댓글 목적 양상과 공격성, 충동성, 자극추구성향이 악성 댓글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30(4), 131-158.
- 김한민, 김기문 (2018). 온라인 게시판에서 익명성과 악성 댓글 사이의 관계 연구: 합리화와 도덕성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31(6), 1095-1115.
- 김한민, 박경보 (2018). 성별 차이에 따른 악성 댓글 중화의 조절효과.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8(12), 817-826.
- 김혜원, 이지연 (2017).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 공격성, 사회불안, 페이스북 중독의 구조적 관계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8(2), 265-291.
- 김효주 (2010). 자기에 성향자들의 명시적, 암묵적,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은희, 박주영, 허현영 (2016). 청소년 사이버 상담에 대한 사이버 상담자의 심리적 경험. *청소년학연구*, 23(2), 271-297.
- 박대식, 손은정 (2016). 사이버 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익명성, 공격성,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태도. *상담학연구*, 17(4), 313-331.
- 반형걸, 주예진, 남윤재 (2022). 메타버스에서의 사이버폭력과 그 대책-아바타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2(4), 33-34.
- 배혜림, 남숙경 (2019). 성별에 따른 성격 5요인과 관계중독의 사이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0(2), 171-190.
- 서수균 (2011). 비합리적 신념과 공격성 사이에서 부적응적 인지 전략과 대인관계 양상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01-919.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487-500.
- 서수균, 이현두 (2018). 자기에성향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9(1), 85-101.
- 성미경, 박성희 (2021). 사이버 상담자의 심리 스트레스, 공감피로 및 공감만족, 소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1), 231-242.
- 성정혜, 김춘경 (2022). 청소년의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잠재 평균 분석 및 다집단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3(2), 117-135.
- 소예은, 김혜숙 (2021). 전위된 공격성이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과 가해자 정의민감성의 조절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6), 205-215.
- 신소라 (2016).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긴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3(1), 339-366.
- 엄혜현, 김봉환, 이영선, 김경민 (2014). 청소년의 사이버상담 경험 유무 및 성과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2(2), 183-200.
- 오인수 (2014). 성별에 따른 유형별 공격성과 전통적 괴롭힘 및 사이버 괴롭힘 가해의 관계. *상담학연구*, 15(5), 1871-1885.

- 우지숙, 나현수 (2017). 인터넷 서비스의 본인 확인절차에 대한 인식과 인터넷 이용자의 사회적 익명성과 자기노출에 대한 연구. *언론과 법*, 16(3), 143-183.
- 유보라, 정남운 (2021). 내현적 자기애와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지역과 세계*, 45(2), 79-102.
- 육은희 (2018). 처벌메시지 유형, 대안적 정보 제시, 익명성 지각이 게임 내 언어폭력에 대한 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아, 장혜인 (2018). 좌절 상황에서 정신병 질 및 자기애 성격특질이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4), 903-923.
- 이성식 (2005).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청소년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기존 요인들과의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6(1), 77-108.
- 이수봉 (2017).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또래 동조성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익명성의 매개효과.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미 (2014). 서울시 청소년 사이버 괴롭힘 (Cyber bullying)에 대한 성별차이 분석.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31.
- 이은희 (2022). 대학생의 자기애와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분노 조절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29(1), 121-145.
- 이인혜 (2014). 청소년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사이버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영, 석동현 (2017). 평가 피드백, 공격 대상의 사회적 지위 및 익명성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역과 세계*, 41(1), 209-231.
- 임수진, 이수진 (2020).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성 차이와 대인관계문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7(1), 109-123.
- 정광훈 (2022). COVID-19로 인해 전환된 화상 상담의 내담자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1), 865-881.
- 정남운 (2001a).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정남운 (2001b). 과민성 자기애 척도(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정다운, 이영선 (2022). 사이버 상담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고찰: 청소년 상담 공공기관 채팅상담 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30(1), 249-269.
- 조운오 (2015). 외국의 청소년 사이버불링 대응방안 및 개입 프로그램 고찰. *경찰학논총*, 10(3), 335-371.
- 조은영, 곽은희 (2012). 실패 피드백 이후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와 분노 표현 양식. *재활심리연구*, 19(3), 583-599.
- 차은진 (2020).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5(10), 179-184.
- 최재영 (2016). 온라인 커뮤니티 유형에 따른 익명성 인식차이가 악성댓글 게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수미, 이상일, 이경란, 이미옥, 이혜일, 김환 (2021). 온라인 상담에 대한 상담자들의 경험과 인식 조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11), 581-595.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성훈 (2010). 자기애성 성격 성향자들의 자기구조 특성: 외현형 및 내현형 자기에의 하위분류에 따른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3), 507-531.
- Akhtar, S., & Byrne, J. P. (1983). The concept of splitting and its clinical relevanc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8), 1013-1016.
- APA (2013). *Guidelines for the practice of telepsychology*. <https://www.apa.org/practice/guidelines/telepsychology>
- Bloom, J. W. (1988). The ethical practice of webcounseling.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ing*, 26(1), 53-59.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19-229.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 Christopherson, K. M. (2007).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lications of anonymity in Internet social interactions: "On the Internet, Nobody Knows You're a Do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3(6), 3038-3056.
- Cooper, A. M. (1998).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E. F. Ronningstam (Ed.),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pp. 53-7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u, T. V., Miller, J. D., & Lynam, D. R. (2022).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m and aggress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90(4), 574-594.
- Grijalva, E., Newman, D. A., Tay, L., Donnellan, M. B., Harms, P. D., Robins, R. W., & Yan, T. (2015). Gender differences in narcissism: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1(2), 261-310.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588-599.
- Hugues S. K., Paul R., & Hao X. (2014). Associations between Cyberbullying and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Suicidal Ideation, Plans and Attempts among Canadian Schoolchildren. *PLoS One*, 9(7), 1-9.
- Keipi, T., Oksanen, A., & Räsänen, P. (2015). Who prefers anonymous self-expression online? A survey-based study of Finns aged 15-30 year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8(6), 717-732.
- Kuss, D. J., & Griffiths, M. D. (2011). Online

-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 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9), 3528-3552.
- Marc A. M., Amos Z., Dennis E. R., & Joshua D. M. (2008). Narcissism and displaced aggression: Effects of positive, negative, and delayed feedback.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1), 140-149.
- Raskin, R., & Hall, C.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2), 590-590.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902.
- Scott, C. R., Corman, S. R., & Cheney, G. (1998). Development of a structural Model of Identification in the organization. *Communication Theory*, 8(3), 298-336.
- Young, K. S. (2005). An Empirical Examination of Client Attitudes Towards Online Counseling. *CyberPsychology & Behavior*, 8(2), 172-177.
- Zimbardo, P. G. (1969). The human choice: Individuation, reason, and order versus deindividuation, impulse, and chao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7, 237-307.
- 1차원고접수 : 2024. 02. 03.
심사통과접수 : 2024. 03. 15.
최종원고접수 : 2024. 03. 30.

Relations between Anonymity and Aggression: Narcissistic Types and Gender

Hyoo-sim Cho Soo-hyun Cho

Department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gender and narcissistic types as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onymity and aggression in 206 adults.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in SPSS 29.0, anonymity, aggression, overt narcissism, and covert narcissism were analyzed. Results reveal that the impact of anonymity on aggression loses significance when considering narcissistic types, despite sole anonymity significantly explaining aggression. Both overt and covert narcissistic tendencies explained aggression, controlling anonymity. Gender differences were observed, with only covert narcissism significantly explaining aggression in men, while women showed significant effects for both narcissistic tendencies in anonymity controlled conditions. The study underscores the need to scrutinize personal factors such as narcissistic types and gender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nonymous counseling. It emphasizes consider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beyond the influence of anonymity itself.

Key words : *anonymity, aggression, overt narcissism, covert narcissism*